

www.sunnykorea.org



후원자님의 따스한 후원의 손길은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물해주시는 것입니다.

파래진 입술과 피부, 더딘 성장, 여러 합병증 ...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도상국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은
수술비와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진찰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장병은 수술시기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술 비용 마련이나 수술 대기 중에
수술시기를 놓쳐버려 수술이 어려운 상태에 빠지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병변이 발생하여 조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의 손길은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생명을 선물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6-01-0243-154(한국선의복지재단)
- 후원문의 : 한국선의복지재단 사무국 02-884-5510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2014년 32호

선의소식

Sunny Korea News

선의복지재단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설립목적

사람에게는 본인의 행복과 사회 및 이웃을 위해 보람된 역할을 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을 어떻게 살리고 키워 가야할지, 너무 작은 것이라 망설이거나, 나 혼자 돕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인, 단체, 기업들의 선한 마음을 예탁 받아 국내외 소외되고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의복지재단의 활동은 첫째 사랑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둘째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며, 셋째 의료, 문화, 교육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고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이웃을 향한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비전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 더불어 사는 선의
2. 발이 되어 뛰는 선의
3. 꿈꾸는 자를 만드는 선의

법정이사회	이사장	문영기	이사	권규상	오혜선	조경옥	감사	김학진	운영이사회	권항자	문정인	신귀례	오혜선	조경옥	하숙란
				김명길	이영희			오동근		김에스터	문정임	엄혜정	이영희	조경완	황명덕
				신용규	이필남					김옥훈	박숙자	여옥기	이필남	조문자	
				여주기	정진호					김정혜	박영숙	여주기	정송자	주기옥	

한국선의복지재단 국내 외 지회(지부) / 법인 및 사업장

한국선의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T. 02-884-5510 F. 02-884-5512 경주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남길 23-4 T. 054-773-8212 F. 054-773-8213 경남지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예술촌길 44호 T. 010-9508-6586	대구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1040-24번지 T. 053-761-9975 영동선의연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495 T. 043-744-8438 뉴욕 법인 35-74 162 St.Flushing NY 11358 T. 516-721-8101 F. 347-732-9459	LA 지회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T. 714-773-5578, 714-726-5948 베트남 법인 LOTS No. 71, 74 Linh Trung Commune, Thu Duc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 093-561-2492 우크라이나 지부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T. +38067-130-8089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T. 02-886-9941~3 F. 02-874-4048 선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1층 T. 02-885-9770
--	--	--	---



말레이시아 환아_왼쪽부터 MOHD ISHAN JAMALUDDIN(14세,남)/VALLIS VALENTINO FRANCIS JAMES(1세,남)/SITI AMIRA OTHMAN(8세,여)

Contents

02 감사의 글
03 연혁

해외 사업 - 보건 / 의료 부문

04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07 팔리와 티다풍의 새 생명을 찾는 이야기(62차)
09 다시 만난 아이들 _ 산세다, 조세핀, 트리샤

해외 사업 - 보건 / 의료 부문

11 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사업
12 소리로 세상을 보는 걸리
13 소리로 세상을 보는 걸리 스케치
14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 운영 사업

해외 사업 - 교육 / 문화 부문

16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
18 미국 뉴라이프 재단 오케스트라 협력 사업

19 1:1 결연 지원 사업

20 써니비엠티 활동

21 2014년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원 소개

해외 기관 - 세계 속의 Sunny Korea

22 뉴욕 법인
23 LA 지회
24 베트남 법인
25 우크라이나 지부

국내 기관

26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27 선의어린이집, 경주 지회
28 경남 지회
29 대구 지회, 영동선의연수원

30 후원기관 및 후원자 소개

32 후원보고
33 미리내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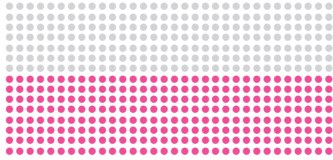


한국선의복지재단을
응원해주세요!

사무국 홈페이지 www.sunnykorea.org
하노이적십자선의한국병원 홈페이지 www.sunnykoreaclinic.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nnyfoundation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sunnykorea.do
티스토리 hearton.tistory.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 046-01-0243-154 / 한국선의복지재단

발행일 | 2014년 11월 27일
발행처 | 한국선의복지재단
발행인 | 문경기
기획·편집 | 한국선의복지재단 홍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자동 383-10
전화 | 02-884-5510
팩스 | 02-884-5512
홈페이지 | www.sunnykorea.org
디자인·인쇄 | 인디커뮤니케이션즈



감 사 의 글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문 영 기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선의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B. Spinoza)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선의복지재단은 내일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암담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나 세상 속은 온통 갈등과 분노로 뒤덮여 있는 듯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폭발해 버리고 마는 삶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사랑과 나눔이 커져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점점 바빠지고 각박해져가고 나눔도 점점 작아져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새 희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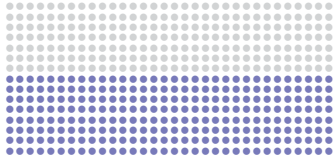
선의복지재단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생명나무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심장병 어린이 수술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과 이집트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중에서 선천적으로 귀에 달팽이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필리핀 어린이 걸리에게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베트남 지체장애 청소년들에게는 인공의지와 의수를 달아주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선의복지재단은 작은 마음으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선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따라 선의복지재단은 귀한 생명을 위해 정성과 땀과 눈물로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선의복지재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주, 경남, 대구지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후원해주시고 자원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베트남, 중국 내몽고,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미국 등 세계 각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선의복지재단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연혁

2013~ 2014

- 2013
- 01월 우크라이나 기부 창립
 - 02월 문영기 이사장 취임
 - 05월 문영기 이사장 베트남 우호훈장 수상
 - 10월 재단 사무국 이전(용산구 청파로)
 - 12월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76명 수술(누계)

- 2014
- 09월 제2회 용산구청 사회복지박람회 참여
 - 12월 8월 KCOC(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 중견 단체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 선정 / 필리핀 깨알록 지역 사업발굴 조사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문정인 관장 퇴임
 - 12월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93명 수술(누계)

2011~ 2012

- 2011
- 04월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200명 수술
 - 05월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와 강원대학교 MOU 체결 네트워크
 - 07월 베트남 하노이 썬선 선의적십자병원 무료 이동진료사업 시작

- 09월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와 한국선의복지재단 협력사업을 위한 MOU 체결

- 2012
- 12월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

2000~ 2010

- 2000
- 03월 경남지회 창립
 - 07월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개관
 - 08월 대구지회 창립
- 2001
- 07월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 개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관 명칭 변경
 - 11월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 시작
- 2002
- 05월 미국 뉴욕법인 창립
 - 12월 베트남 내 해외 NGO 등록
- 2003
- 06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표창장 수여
 - 10월 치매노인센터 개소(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내)
 - 11월 한국선의복지재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 2004
- 04월 선의노인요양센터 설립
 - 05월 베트남 국가부주석 재단 감사 방문
 - 07월 베트남 다낭시 선의태권도 체육관 기공

- 2005
- 04월 선의시니어케어센터 개원(현 선의세종노인전문병원)
 - 07월 한국선의복지재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NGO 등록
 - 09월 서울신학대학교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어린이집 기증
 - 11월 베트남 하노이 썬선 선의적십자병원 준공
- 2006
- 03월 한국선의복지재단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회원단체 등록
- 2007
- 07월 미국 뉴욕법인 게스트하우스 개관(현 뉴욕선교사의 집)
- 2008
- 08월 미국 LA지회 창립 Sunny Korea Cup 베트남 다낭 전국태권도 대회
- 2009
- 06월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학과 개설 협약
 - 09월 중국 통랴오 내몽고민족대학 한국어교사 파견 시작
- 2010
- 08월 LA 조이랜드 내 씨니 솔트하우스 지도자 훈련원 협의
 - 09월 베트남 하노이 썬선 선의적십자병원 2기 준공

1990~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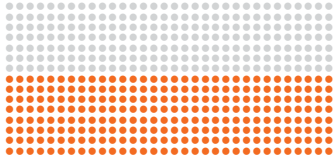
- 1990
- 08월 선의은행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1992
- 02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무안군청, 목포시청)
- 1993
- 03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활동 공로 표창(신안군청) 선의은행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인가

- 1994
- 03월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선의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
- 1995
- 01월 경주지회 창립
 - 08월 영동선의연수원 설립
- 1999
- 10월 소사복지회관 위탁운영,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승격

1980~ 1989

- 1982
- 12월 한국선의은행중앙회(현 한국선의복지재단) 발기
- 1983
- 01월 마포구 망원동 소재 빛남음악학원 내 임시 사무실 개설
 - 12월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이전

- 1984
- 10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득함
- 1987
- 12월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 개관(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해 외 사 업 보 건 / 의 료 부 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지금 이 순간에도 저개발 국가의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베트남 내에서 약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장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그 가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국의 부천세종병원과 협력하여 3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에 초청하여 무료 수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을 통해 베트남 외에 필리핀, 라오스,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말레이시아 등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66차례에 걸쳐 총 293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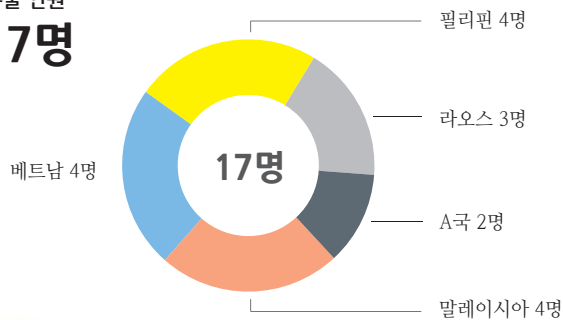


2014년 수술 현황

시행차수	국가	인원	수혜아동	성별	나이	수술병원
61차	필리핀	3	JAMAICA ESLAO SUELLO	F	3	부천세종병원
			FERL TORRES AMBROSIO	F	17	
			AMAIA SHERYN BORJAL	F	2	
62차	라오스	3	KEOHUNGKHA THIDAPHONE	F	2	부천세종병원
			SENGKHAMYONG TAMONG	F	2	
			YANGPAMA XAMLY	M	2	
63차	말레이시아	4	MOHD ISRAN JAMALUDDIN	M	14	부천세종병원
			SITI AMIRA OTHMAN	F	8	
			VALLIS VALENTINO FRANCIS JAMES	M	1	
			SHARFIRA BINTI SELAMAT	F	3	
64차	베트남	4	HA THI HUONG	F	12	건국대학교병원
			NGUYEN HAI LONG	M	5	
			HOANG THI QUYNH ANH	F	2	
			NGO THANH DUY	M	3	
65차	필리핀	1	OLAMIT GYRLIE REXIE GALANG	F	8	부천세종병원
66차	A국	2	X	F	14	건국대학교병원
			X	M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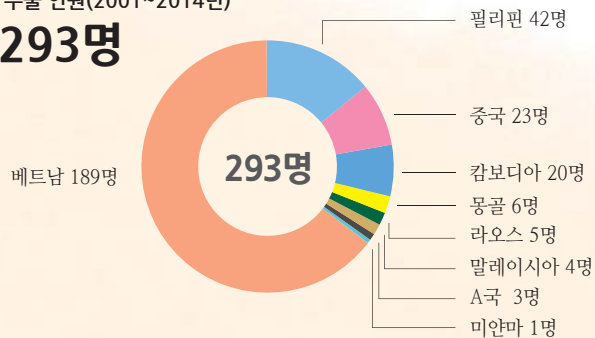
2014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인원

17명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인원(2001~2014년)

293명







쌀리와 티다풍의 새 생명을 찾는 이야기(62차)

2014년 7월 4일 새벽 라오스에서

따몽(18개월, 여), 쌀리(24개월, 남), 티다풍(15개월, 여)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모두 선천적으로 심장기형을 가진 아기들입니다.

세 아동의 수술을 위해 신촌성결교회, 메디칼코리아, 부천세종병원, 유진크레베스, 바보의나눔에서 후원해주었으며, 수술은 부천세종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쌀리는 라오스의 소수민족 몽족 아이입니다. 쌀리 가족과 고모 가족 그리고 친척들 24명 대가족이 한 달에 300\$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리는 심장병도 있었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피부병, 땀띠로 덮여있었고 늘 배가 고픈 아이입니다. 얼마나 배를 곯았는지 아파서 울다가도 먹을 것만 있으면 벌떡 일어나는 아이였습니다.

영양을 위해서인지, 라오스의 식습관인지 밥에 설탕을 섞어 먹던 쌀리는 수술 후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해졌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으며 맛난 것도 배부르게 많이 먹고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만 앞에 두면 좋아서 웃음 짓던 쌀리에게 1:1 개인 결연후원자도 연결되어 3만원/월의 후원금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쌀리가 먹을 것이라도 든든히 섭취하여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티다풍은 아플 때마다 라오스에 있는 병원에 갔었지만 라오스 의사들의 심장병에 대한 발견도 늦었으며 라오스의 가장 큰 병원에 유럽의사들이 왔을 때 심장검진을 받았으나 라오스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 아동병원의 황인창 선생님(소아과)의 소개로 한국선익복지재단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정밀 검사 결과 15개월밖에 안된 아기지만 이미 수술시기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맥관, 심실의 구멍은 둘께 치고 대동맥도 심하게 좁았고, 폐동맥고혈압도 높았으며 폐도 많은 부분 손상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안고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퍼런스 후에(복잡심기형인 해외아동의 경우는 지원금, 체류기간, 수술결과처리 등으로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함) 천만다행으로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티다퐁의 엄마에게는 아이가 이미 수술시기를 놓친 것과 수술은 잘 되겠지만 교정이 된 심장을 아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과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는 시신 없이 분골만 가지고 귀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루 이틀 깊은 고민과 본국의 가족과도 여러차례 논의한 끝에 티다퐁 엄마는 수술 결과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와의 인연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술을 받겠다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살아서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며 엄마는 많이 울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아이지만 살려달라는..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라오스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애틋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통했는지 수술 후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티다퐁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고 건강한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건강한 모습으로 라오스로 돌아갔습니다.



따뭉, 찰리, 티다퐁과 같은 명단에 있었던 11명의 대기아동 중 여러 명의 아이들이 초청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대기하다 하늘나라로 떠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선천성 심장병 환아 수술은 단한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보험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수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의 손길은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선익복지재단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다시 만난 아이들 _ 산세다, 조세핀, 트리샤

2014년 9월 3일 수요일 한국선의복지재단 지성은 팀장, 연미영, 양운정 간사 및 필리핀 라구나 지역 김종태 선교사 부부가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 아이의 가정은 모두 필리핀 라구나 지역입니다. 라구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중심에서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산세다의 가정입니다. 산세다는 2010년생 여자아이입니다. 2013년에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세다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과 탈장이 함께 있는 상태였습니다. 탈장의 정도가 심하여 현재까지 수술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가 잘 먹고 살이 찌야 탈장수술이 가능한데 현재 너무 말라서 수술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탈장이 있는 부분이 아이의 머리보다 커서 평소에는 기저귀로 싸고 있습니다. 산세다는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정말 많지만 집에서는 이웃 언니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애교도 부립니다. 산세다는 올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지만 몸이 아파 입학할 수 없습니다.



산세다의 가족은 6명입니다. 엄마, 아빠와 두 오빠, 두 언니가 있고 산세다는 막내딸입니다. 20살인 큰 오빠와 17살이 차이나는 산세다는 집안의 애교쟁이입니다. 아빠는 고물을 팔아 하루에 250Peso(한화 약 6,000원)를 벌니다. 꾸준히 일을 하면 한 달에 4,000Peso(한화 약 96,000원)를 벌니다. 그나마도 지역 내에서는 일이 없어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한다고 합니다. 산세다가 살이 찌 탈장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다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세다네 집_ 건강해져서 하루 속히 탈장수술 받기를 소망합니다.

* 왼쪽부터 언니, 시누이, 조카, 오빠, 엄마, 산세다

두 번째 가정은 조세핀의 집입니다. 올 해 10살인 조세핀은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았고 5년째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세핀의 집에는 할머니와 8명의 남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5년 전에 집을 나갔고 아빠는 필리핀에서 경비로 일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가난이 가져온 안타까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팔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세핀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본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교사가 되겠습니다.

7월에 찾아온 태풍의 피해로 집의 나무판자 사이가 벌어지고 삐걱거리는 바닥이라 위험하지만 그나마 침수지역임을 고려하여 계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바닥의 나무판자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강한 빗줄기의 힘처럼 조세핀의 꿈이 환하게 펼쳐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왼쪽부터 조세핀의 언니, 언니, 오빠, 조세핀, 할머니

조세핀네 집_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교사가 되겠다는 조세핀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트리샤의 집입니다. 조세핀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트리샤는 2007년생 소녀로 2013년 서울아산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엄마와 똑 닮은 큰 눈망울이 예쁜 트리샤는 말 수가 없고 조용한 요조숙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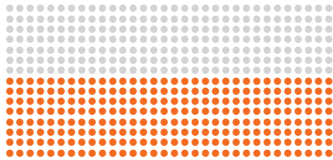
트리샤의 아빠는 경비 일을 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신 이후 그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다고 합니다. 트리샤의 엄마는 한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4,000Peso(한화 약 96,000원)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10만원이 안 되는 생활비로 세 식구가 생활을 합니다. 트리샤보다 4살이 많은 오빠는 늘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한다고 하고 어린 동생을 늘 돌본다고 합니다. 경찰이 되어 가족을 돌보겠다는 트리샤 오빠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왼쪽부터 엄마, 오빠, 트리샤

트리샤네 집_
트리샤 가정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해 외 사 업 보 건 / 의 료 부 문

[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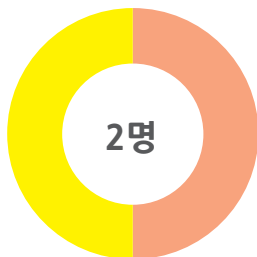
기타 난치성 질환 수술 현황

시행연도	국가	수혜아동	성별	나이	병명	수술병원
2008	베트남	NGUYEN DUONG QUY	F	4	구개구순열	분당서울대병원
2009	베트남	NGUYEN CHUNG TIEN	M	18	전신화상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보라매병원
2011	베트남	NGUYEN HOANH ANH	M	5	구개구순열	분당서울대병원
2012	캄보디아	PHAL SO PHAN	M	1	스터지웨버증후군	신촌세브란스병원
2013	베트남	NGUYEN TRONG TIN	M	17	선천성골형성부전증	삼성서울병원
2014	필리핀	OLAMIT GYRLIE REXIE GALANG	F	8	선천성 감각 신경성 난청	부천성모병원
2014	인도네시아	WAHYU KRISTININGSIH	F	14	혈관종	부천성모병원

2014년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 인원

2명

필리핀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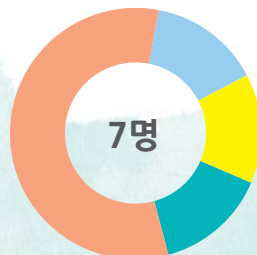
2명

인도네시아 1명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 인원(2008~2014년)

7명

베트남 4명



7명

—— 캄보디아 1명

—— 필리핀 1명

—— 인도네시아 1명





소리로 세상을 보는 걸리

걸리(OLAMIT GYRLIE REXIE GALANG, 2006년생, 여)는 심장에는 구멍이 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선익복지재단을 통해 2013년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기간동안 양쪽 귀가 기차가 지나가도, 대포가 터져도 아무 것도 듣지 못하는 걸리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 밖에 없고, 심장수술 1년 뒤인 올해 부천성모병원과 평화신문 및 개인후원자님들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어 작고 귀여운 아이 걸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심장병 수술 차 한국에 와본 적이 있는 걸리는 두 번째 방문이라는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답니다. 5월 30일 부천성모병원에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고, 한 달 후 인공와우를 비로소 작동시키는 ‘스위치 온’하였습니다. 걸리가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듣는 날이었습니다. ‘지지직’하는 소리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직이던 걸리가 조용해지고, 들리는 쪽으로 눈동자를 돌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걸리는 3개월 동안 영어로 재활 및 언어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선익세종노인병원에 머무르며 일주일에 두 번씩 부천성모병원까지 가는 길은 걸리에게는 한국에서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자동차, 사람들을 구경하느라 이동시간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언어치료를 통해 걸리는 “Hi, Bye”등의 짧은 단어들을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Hi, Bye”만 계속 시키니까 걸리는 그동안 살아온 편안함이 더 좋은지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뻥긋하며 걸리만의 언어로 말하곤 했습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을 입모양, 손짓으로 열심히 표현했던 걸리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해할 수 있는 음성 언어로 말할 수 있겠지요?



9년 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던 걸리. 한국에서 3개월의 짧은 언어치료를 마치고 돌아간 필리핀에서도 꾸준한 언어치료를 통해 주변의 도움을 통해 손짓, 입모양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을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걸리는 두 번의 심장수술과 한차례의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통해 정말 값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프라이미비인후과, 선익세종노인병원, 유진크레베스, 디와이홀딩스, 개인후원자(정남운, 문필기, 박노준, 주영일, 권오숙, 조현진), 선익복지재단 이사회 등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의 손길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걸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서울 덕수초등학교 61회 동창회분들은 걸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1 결연 후원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심장수술로 얻은 새 삶에 이젠 들을 수 있는 희망이 더 크게 피어나길. 걸리 파이팅!



소리로 세상을 보는 걸리 스케치

>>>>> 2013년 첫 심장 수술



걸리(8세)와
엄마 셸리(30세) 입국



걸리는 체류기간 동안, 한국식사보다
맵지 않은 라면류를 즐겨먹고, 치킨도 즐겨먹었음



2013년 6월 11일
수술로 심장의 구멍을 막았으
나 구멍이 컸고, 적응기간이
필요하여 반 정도는 남겨둬,
추가 수술 필요함



즐거운 63빌딩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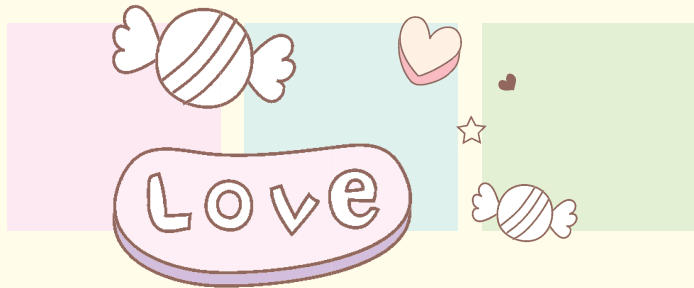
>>>>>



함께 수술받은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63빌딩
관광



건강해진 모습으로 출국



>>>>> 2014년 인공와우 이식과 심장 수술



인공와우 이식 수술과 추가 심
장 수술을 위해 입국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



5시간의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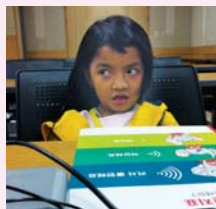


귀 뒤를 절개하여 인공와우
이식

>>>>>



멤핑과 언어치료가 필요한 걸리는 부천성모병원 퇴원 후
노원 선의세종노인전문병원에서 한국체류시작



처음으로 걸리의 귀에
'소리'라는 것이 들어간 날



두 번째 심장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 씩씩한 걸리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걸리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 운영 사업]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Ha Noi Red Cross Sunny Korea Clinic)은 한국선익복지재단에 소속된 기관으로 하노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썩선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썩선현 전체 인구의 약 11%인 빈민 3만 여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재활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에는 베트남 현지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4명, 관리 5명, 한국인 파견봉사단원 2명, 한국인 물리치료사 1명 총 14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현지인 11명은 모두 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썩선현에 거주 중입니다.

베트남은 전반적인 병원 시설 및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총인구의 78%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대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의료비 인상으로 중·하층 주민들이 질적인 의료 수혜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재단은 2004년에 하노이 적십자사와 빈민 무료진료소 사업에 관해 협정을 맺어 2006년부터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고 베트남의 과거 전쟁과 고엽제,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활치료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9년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며 현재 재활치료 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황 보고

1. 무료 재활 물리치료 및 내과 진료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재활 물리치료 센터에는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분들이 방문하여 치료 및 재활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과와 달리 재활치료는 여러 기구운동 및 물리치료까지 환자 1인당 40~50분 가량이 소요되며 주로 오전시간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에 추수시기가 되면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방문하는 환자의 평균 연령은 40~50대이며, 단 기간 치료로 완쾌되는 것이 아니기에 내원 환자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환자 가정방문 및 재활 훈련

후천적인 요인의 척수 손상 환자들은 이동 및 병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치료 및 사회성 결여 방지를 위하여 주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의 한 분은 집 수리를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척수손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무료 이동 진료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은 하노이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병원이 위치한 썬선현 내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형편이 어려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가 이루어지는 해당 보건소를 통해 사전 공지 및 방문 환자수를 예약 받아 1일 200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대상은 해당 보건소가 위치한 마을의 주민들이며, 투입되는 인원은 병원 직원 9명과 한국인 물리치료사 및 봉사단원,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 등 약 20명 내외입니다.



>>> 향후 운영 방향

1. 재활 훈련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 개발 및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욕과 동기 부여
2. 지역사회에는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교통사고, 환경오염, 마약 및 범죄율 증가 등)의 발생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 고취
3. 재활 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계몽과 역할 수행
4. 향후 보장구(의수 및 의족)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정상인과의 차별감과 열등감 극복
5. 하노이 적십자 선의 한국 병원의 제 3기 중점 역할을 '무료진료, 치료차원에서 예방 및 재활 차원으로 up-grade 하고, 재활센터를 향후 NGO의 지역사회 보건사업 및 의료 서비스 활동 모델'로 정착하게 함



해 외 사 업 교 육 / 문 화 부 문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



2014년도

- 봄학기 :
교양반(초급 4개반, 총 260명)
배양반(초급반 9명, 중급반 6명)
- 가을학기 :
교양반(초급 4개 반, 총 260명)
배양반(초급반 22명, 중급1반 5명, 중급2반 5명)

내가 만난 그들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육 담당 박정환

지난 학기의 일이다. 한번은 연휴 때 시간이 생겨서, 길림(吉林)이라는 도시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 때마침 기차가 1시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기차역에서 꼬박 1시간 넘게 발이 묶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가씨가 반가우면서도 좀 멧쩍은 몸짓으로 인사를 하며 말을 걸어왔다. 실은 전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자기도 연휴를 맞이하여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고 나와 같은 기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나를 발견하고 무척 반가워서 달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심심하던 차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차를 기다렸고, 기차가 도착하자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수많은 승객 사이를 비집고 겨우 열차에 오른 뒤, 이내 자리를 찾아 앉아서 기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낮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날아왔다. 아까 그 여학생이다. 오랜만에 나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여행이 즐겁고 순조롭게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도 급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그 학생에게 답장을 해주었다.

그런데 사실 그 여학생이 먼저 자기를 소개하기 전까지, 나는 그 여학생이 누군지는 물론이고, 언제쯤 내 수업을 들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나에게 있어 그 학생은 그저 내 수업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들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에게 있어서 내 수업을 듣고 나를 만났던 일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기억되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무려 2년 전에 단 한 학기 들었던 수업을, 아직도 선생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화번호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자 나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짧은 재회가 못내 아쉬워 또 다시 문자로 마지막 인사까지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자리에 앉아 내 주위를 뒤흔들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낯설고 외로운 공간이지만, 이 안에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와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나를 걱정해주는 바로 그 누군가가 함께 있다.

그 학생 덕분에 비록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으며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만남과 헤어짐. 누구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고, 그만큼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익숙한 경험일 것이다.



나 또한 애써 헤아려 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만남과 헤어짐의 횟수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이는 비단 나 한 사람에
게만 국한 되는 것도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민족대학교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매일 수업하고 생
활하며, 그들의 파릇한 20대 초반의 인생을 온전히 보내는 젊은 날의 터전이다. 그 2만 명의 학생 중 나를 만났던 혹은 앞으
로 나와 만날 학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그저 내 수업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숫자만 해도 천명이 훌쩍 넘는다. 거기에 오며 가며 이런 저런 기회에 만났던
사람들까지 더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니, 앞
으로 만날 학생까지 더한다면, 그야말로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 중 지금까지 만나온 천명이 넘는 학생
들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사람 기억 못하는 게 특기인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이 학교에서 4년 반이라는 적잖은 시간 동안 그들과 대면해왔고, 그 기간 동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여 학교를 떠
났고,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나는 매년 어떤 학생이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는지 모두 알 수는 없다. 물론 나와 비교적 오랜 기
간 수업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학생들 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매년 학생들은 졸업하고 또 입학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들과의 관계
에 있어 어떤 태도로 임해 왔던 것일까? 또한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며 지내온 것
일까?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 것 같고, 금세 답변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지만, 사실 이러한 물음에 어찌 답을 해야 할지 지
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 반응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업시간에 나에게 주는 그러한 정보
들은 내가 수업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수업 중
에 학생들을 대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언젠가는 그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과 섭섭함이다.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기분에 들떠 신기해하면서도 낮은 표정을
짓곤 한다. 또한 그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유쾌한 긴장감이 녹아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표정과 목소리 뒤편으로 공교롭게도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묻어나는 것 같다.

꼭 그 기차역에서 만난 여학생 때문은 아니지만, 요즘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 나와 함께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학생들이 아니다. 이제 그 학생들은 그저 나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던 수많은 학생들 중 하나가 아니
라, 언제 어디서든 나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게 대화하며, 나를 걱정해줄 나의 소중한 친구들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랴?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먼저 반갑게 다가올 테니 말이다.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교실은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또한 만남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업과 교실이란 단지 지식 전달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과 학생
즉 나와 그들이 만나게 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뜻밖의 기능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수업이라는 수단과 교실이라는 장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고 또 앞으로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늘 많
은 학생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나는 굳이 그들 한 명 한 명의 만남에 큰 의미를 둘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는 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될 테니 말이다.

[미국 뉴라이프 재단 오케스트라 협력 사업]

뉴라이프 재단(New Life Foundation)은, 비영리단체로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음악성을 발전시킬 수 없었던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본 재단은 학생들을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시키고 또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재단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미주 지역 청소년과 여러 나라의 청소년 음악가들이 함께 하며 미주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 및 한국의 소외계층을 위해 자선공연과 봉사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매해 공연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보육원 청소년들과 더불어 음악경연대회와 음악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악성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열방과 세계 온 누리에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www.newlife-foundat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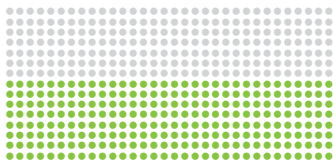


우리 한국선익복지재단은 뉴라이프 재단과 협력하여 2014년 2월 경기도 양지에 있는 비전빌리지에서 열린 보육원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캠프와 5월에 열린 제3회 뉴라이프재단 음악경연대회, 그리고 8월에 열린 제3회 뉴라이프재단 음악경연대회 수상자들의 오케스트라와 합창 리허설을 후원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뉴라이프재단 음악경연대회 수상자들을 위한 멘토캠프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선익복지재단은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선한 일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1:1 결연 지원 사업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고 돌아간 아동들의 사후관리 및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볼리비아 아동들을 후원자와 1:1로 결연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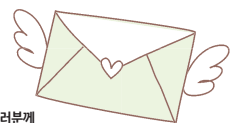


1:1 결연은 아동과 그 가정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멘토가 되어주신 후원자님들께 띄우는 아이들의 감사 편지입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써넣은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머나먼 한국에 자신들을 위해 손길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심장 수술 받은
픽흥의 감사 그림



한국 선의복지재단 여러분께

저는 선의재단을 통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편입니다. 한국에 두 번이나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꼈고 선의재단을 통해서도 귀한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현재 저는 예전에 비해 매우 건강해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의 재단의 모든 식구들, 문영기 이사장님, 이명숙 선생님, 황명덕 이사님 모두 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재단의 무궁한 발전으로 베트남의 장애인들의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십시오. 또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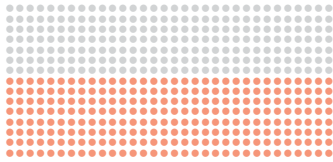
2014년 4월 16일 응우옌 쟁 똌 올림



2009년 심장 수술 받은 베트남 부대언댁의 감사 그림



2010, 2013년 수술 받은 응우옌 쟁 똌의 감사 편지



써니비엠티 활동

써니비엠티(Sunny Vietnam)은, 2011년 탄생하였으며 한국에서 유학 후 베트남으로 귀국한 베트남 젊은이들 중 한국선익복지재단과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회사원, 대학강사, 변호사, 의사, 사업가, IT전문가 등)들이 연 4~5회 토~일요일, 공휴일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활동보고

간저현의 타잉안 초등학교 행사

1. 행사개념 : 매 연초에 하는 행사이며 간저현에 있는 타잉안 초등학교 45명의 학생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및 선물 지원, 학교에 컴퓨터 전달)
2. 일시 : 2014. 6. 8.
3. 장소 : 간저현 타잉안 초등학교(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
4. 지원내역 :
 - 1) 장학금(45명) : 25,000,0000동(20명-500,000동, 5명-1,000,000동)
 - 2) 책가방(105개) : 2,100,000동
 - 3) 컴퓨터(3대) : 5,400,000동
 - 4) 학용품(펜, 공책 등) : 1,250,000동
 - 5) 기타 : 9,907,000동
5. 행사 참여 써니비엠티 봉사자 수 : 25명



2014년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원 소개



우즈베키스탄 유수현 봉사단원

저는 2014년 3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섬유경공업대학교
연구소로 파견된 유수현 단원입니다.

저는 한국선익복지재단의 봉사단원으로서 동 대학 연구소에서 KOICA 프로젝트(우즈베키스탄 농촌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사업)와 관련한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누에 사육 및 잠실개조 관련 업무 지원
- 대외 공문서 관리 및 회의록 정리
- 은행업무, 사업비 지출 및 영수증 관리 등



베트남 하노이 최계선 봉사단원

저는 2014년 3월 베트남 하노이로 파견된 최계선 단원입니다.

저는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썩선현 지역에 위치하는 The Hanoi Red Cross Sunny Korea
Clinic(이하, 선의한국병원) 무료진료소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09년, 7년여 근무하던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_유학을 떠났다가
2011년 가을에 한국으로 돌아와 전공과는 무관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비전이 어떤
것임을 어렵잖이나마 느끼게 되었고 그 비전을 향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연한 기회를 얻어
선의복지재단을 통하여 2014년 3월 베트남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비전은 그 기초를 닦는 훈련
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병원의 직원들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낮은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임성호 봉사단원

저는 2014년 2월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파견된 임성호 지부장입니다.

한국선익복지재단의 베트남 법인이 있는 호치민에서 지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내년
NGO협의회 총무로 NGO제반 대외업무, 야학을 개설하여 어린이 문맹퇴치 협력, 고아원 어린이들 돌봄,
청소년 선의 봉사단을 창단하여 각종 봉사활동 참여, 환자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각종 음악 콘서트 개최
협연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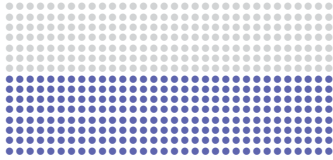
베트남 호치민 함명자 봉사단원

저는 2014년 2월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파견된 함명자 단원입니다.

한국선익복지재단의 베트남 법인이 있는 호치민에서 일반 행정 업무인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야학의 선
생님들과 어린이 관리, 고아원 어린이들의 돌봄과 지원, 청년 선의 봉사단과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 은행
업무 담당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1년 파견 기간동안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 외 기 관 세계 속의 Sunny Korea

[뉴욕 법인]

- 주소 : 35-74 162 St.Flushing NY 11358
- 연락처 : Tel. 516-721-8101 / Fax. 347-732-9459
- 설립연도 : 2003년 7월 23일
- 설립취지 : 선의재단과 마음을 같이하는 교민들이 모여 꾸준한 기도모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뉴욕지역 노숙자, 청소년사역, 북한선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며, 2007년부터 뉴욕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선교사의 집 _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최선을 다하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운영 중

- 주소 : 35-74 162 St.Flushing NY 11358 ● 연락처 : Tel. 516-721-8101, 516-802-5635
- 홈페이지 : <http://www.nycgh.org>

2014년 활동보고

1. 2014년 2월 '2014년 정기총회' 시 북한 나진, 선봉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북한사역과 북한 동정 등의 동영상
상을 통해 뉴욕 선교사의 집 사역의 일환으로 그 선교사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북한 간접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여
후원금 지원
2. 할렘도 2차례 방문하여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 후원
할렘의 노숙자들, 알코홀, 마약중독자들의 Soup Kitchen 사역
3.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1세, 1.5세, 2세들과 협력하여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2세들의 청소년사역에 관한 참
여도가 열정적으로 더해가고 있음
Free Music Less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늘어 교사들이 더 필요한 상태
4. 정기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 기도회를 브니엘 선교회와 합동으로 회원들이 모여 나라들과 민족들과 위정자들과
교회들, 사역을 위해 기도함
5. 뉴욕 선교사의 집 운영 :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뉴욕 방문 시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LA 지회]

- 주소 :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 연락처 : Tel. 714-773-5578, 714-726-5948 / E-mail. mamajoo@gmail.com
- 설립연도 : 2008년 8월
- 설립취지 : 노숙자 식사제공을 위해 모이던 10여 명이 선의 LA 지회 발족 멤버가 되어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기도로 모이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기도와 물질 및 봉사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활동보고

1. 정기 기도모임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9:30부터 12:30까지 기도모임

2. 월간 활동

- 2014. 4. Yesdaddy 보육원의 John Kim목사님 사역 소개
- 2014. 5. 여명선교회 장명주 목사님 12년 간 20군데 양로원 찬양사역 나눔
- 2014. 6. 무지개가족선교회 이지혜 선교사님 사역 나눔
Yesdaddy 보육원 제주국제공부방 건축 지원
- 2014. 7. 이용숙 부회장 중단기 필리핀 빈민촌 장애우 학원 사역 보고
- 2014. 8. 16. 무지개가족선교회 부에나파크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 서머스쿨 졸업식
점심식사 후원 및 모자 기증
- 2014. 8. 23. 6주년 감사예배 및 식사교제
무지개가족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증축 기금 후원
- 2014. 10. 북한 의료 선교팀에 의약품과 성경 넣은 여행가방 후원
- 2013. 9.~2014. 5. 화 저녁과 목 아침에 성경일독 성경방 운영

정기후원 기관들

LA 부모님선교회, Cornerstone 선교회, 여명선교회, 무지개가족선교회, 태청이 가정



[베트남 법인]

- 주소 : LOTS No. 71, 74 Linh Trung Commune, Thu Duc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 연락처 : Tel. 093-561-2492

2014년 활동보고

1. **청년봉사단 창설** : 호치민 인문사회 과학대학교 한국어 학생 위주로 베트남 청년 봉사단 조직
 - **상반기(여름)** 현지 한 공장에서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 지역 봉사
 - **하반기** 형편이 어려운 청년봉사단 15명에게 장학금 지급



2. **'GIO-SUE 고아원' 지원**

- 냉장고 지원
- 한 달에 한 번 약 29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GIO-SUE 고아원'에 방문하여 쌀(100kg), 학용품, 의류, 간식, 장난감 지원 및 정서교류



3. **'희망나눔' 야학 개설**

- **개설 이유** :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시골 사람들은 지역 이주 보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쉽지 않고 복잡하여 대부분의 배움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근무지 이동시 그냥 옮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가정 형편상 못가는 친구들도 많아 '편 득탕'이라는 대학교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야학 개설
- **개설 절차** : 마을회관 창고를 무상 임대하여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실로 하기에는 부적합했지만, 돕는 손길이 생겨 공간을 수리하여 깨끗해진 환경에서 35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음
- **운영** : 주 마다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 및 간식 지급



[우크라이나 지부]

- 주소 :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 연락처 : Tel. +38067-130-8089 / E-mail. ukrkim@gmail.com
- 설립연도 : 2013년 1월
- 설립취지 :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고 격려하는 선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교육사업(대학교 지원, 한국어 교육), 출판사업, 복지사업을 진행합니다.

2014년 활동보고

1. 교육사업

1)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 지원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 키예프 한글학교

2011년부터 한국의 케이팝(K-POP)에 매료되어 한국 노래와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현지 청년들에게 한국어 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50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2. 출판사업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및 가정, 갈등, 실직, 경제 등의 문제들에 지침이 될 소책자를 정기적으로 출간하며, 교양집 및 묵상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고 개인과 가정에 변화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늘어갑니다.

3. 복지사업

-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 : 우크라이나 국립 어린이 심장재단, 병원과 협력하며 불우한 심장병 환아들에게 수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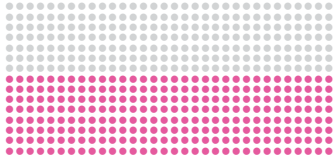


4



5

- 1 2 한글학교
- 3 4 전체 출판물
- 5 우크라이나 국립 어린이 심장병원 협력



국 내 기 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 주소 : 본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별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17 302동 관리동 2층 누리센터
- 연락처 : Tel. 02-886-9941~3(본관), 02-882-9941(별관) / Fax. 02-874-4048
E-mail. gw9941@hanmail.net / Homepage. www.goodwill.or.kr
- 설립연도 : 1987년 12월 4일
- 설립취지 :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보호 사업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입니다.

2014년 활동보고

- 2014. 1. 22. 정서지원사업 2014 설날 행사 '새해복많이지으세요' 진행
- 2014. 3. 21. 따뜻한 겨울나기 표창
- 2014. 4. 2. 관악구재가복지연합회 연합나들이 답사
- 2014. 4. 8 선의가족성장교실 동작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식 진행
- 2014. 5. 8. 정서지원사업 2014 어버이날 행사 진행
- 2014. 5. 31. 관악구어린이축제 진행
- 2014. 6. 18. 관악구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우리춤체조 : 대상/에어로빅 : 단결상)
- 2014. 6. 26. 2014 Sunny one day 일일찾집 진행
- 2014. 7. 5. 우편취급국 중앙회 서울지부 자원봉사활동 협약식 진행
- 2014. 7. 6. 해피시니어스쿨 서초구나라사랑댄스대회 참가(우리춤체조 : 우수상/에어로빅 : 2위)
- 2014. 9. 2. 정서지원사업 2014 추석 맞이 행사 '풍요로운 한가위 나눔' 진행
- 2014. 10. 18. 호리목 우리마을 축제 진행



- ① 설날행사
- ② 어버이날 행사
- ③ 어린이축제
- ④ 추석행사
- ⑤ 호리목축제

[선익어린이집]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1층
- 연락처 : Tel. 02-885-9770 / E-mail. sunhee9770@hanmail.net / Homepage. cafe.daum.net/happysunnee
- 설립연도 : 1987년 11월(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탁아소 개설) / 1994년 3월(보육시설 인가)
- 설립취지 : 맞벌이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보육을 통해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를 돕고,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로 사회성을 가진 차세대 주역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활동보고

1. 주요연혁 : 2014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인증 재재인증 통과
2.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기본생활습관 기르기, 감성과 창의력향상, 나와 이웃, 자연사랑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 및 놀이를 통한 통합적 교육 시행
3. 월 1회의 현장학습, 소풍, 하계캠프, 자율적 특기활동 등으로 자립심과 협동심 향상

[경주 지회]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남길 23-4
- 연락처 : Tel. 054-773-8212 / Fax. 054-773-8213
- 설립연도 : 1995년 1월
- 설립취지 :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이행하며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 계층에게도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활동보고

1. 아동복지사업 : 45~50명의 결손가정 및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의 장학금 지원
2. 재가복지사업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물품 지원

[경남 지회]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예술촌길 44호
- 연락처 : Tel. 010-9508-6586
- 설립연도 : 2000년 3월
- 설립취지 :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자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길을 찾지 못해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후원자를 찾아서 그들의 선의를 모아 삶의 뒀안길에서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참된 위로와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 일에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활동보고

- 2014. 1. 28. 함안 사랑의 쉼터 방문
설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드릴 간식과 옷을 준비하여 방문
- 2014. 3. 16. 진주 상평동 사랑의 집 식사봉사
- 2014. 5. 15. 경남지회 5월 야유회 - 삼천포 박재삼 문학관 견학
- 2014. 6. 15. 조순가정 후원 학생 방문
- 2014. 6. 22. 진주 상평동 사랑의 집 식사봉사
- 2014. 7. 1. 진주교도소 재소자 방문
- 2014. 8. 24. 진주 C.E - 캄보디아 행복한 동성C.E 예배당 건축비 및 물품지원
- 2014. 9. 28. 진주 상평동 사랑의 집 식사봉사
- 2014. 10. 19. 진주 공군교육사령부교회 신병 744기 세례식 지원 및 참석
- 2014. 11. 8. 선의 후원자 돕기 기금마련 바자회 실시
- 2014. 11. 13. 경남지회 11월 야유회 - 지리산 내대 거림계곡
- 2014. 12. 7. 진주 상평동 사랑의 집 식사봉사



- ① 함안 사랑의 쉼터
- ② 캄보디아 행복한 동성C.E 예배
- ③ 선의 후원자 돕기 기금마련 바자회

[대구 지회]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1040-24번지
- 연락처 : Tel. 053-761-9975
- 설립연도 : 2000년 8월 25일
- 설립취지 :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형태의 어려운 이웃에게 순수한 선의로 물질적 나눔의 장을 열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적합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동선의연수원]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495
- 연락처 : Tel. 043-744-8438
- 설립연도 : 1995년 8월
- 설립취지 :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힌 무공해 청정 산골마을에 자리잡고 있으며, 조용하고 한가로운 환경 속에서 여유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활동보고

1. 노인복지센터 운영 : 요양보호사를 4급~1급의 노인가정에 파견하여 어르신 케어
2. 연수원 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활동
3. 밑반찬 서비스 : 월 2회 지역 내 독거 노인 및 생활상 어려우신 분 지원
4. 김장 나누기
5. 떡 나누기

향후 계획

1. 주야간센터 운영 :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 6시간 케어 후 가정으로 모셔다 드리는 사업
2. 감, 사과 등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된장 만들기(판매 수익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



후원기관 후원자 소개



사랑과행복나눔재단
메디칼코리아
부천세종병원
바보의나눔
유진크레베스



2014년 5월
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환자
자마이가, 펠, 아마야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
서울성모병원
평화신문
바보의나눔
유진크레베스

심장병 수술

문필기, 박노준
정남운, 주영일
부천세종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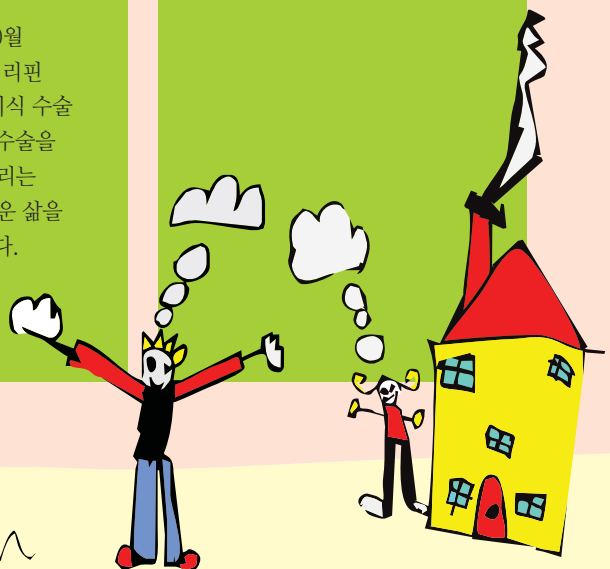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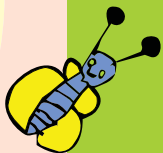
2014년 5월~10월
한국 체류 동안 필리핀
걸리에게 인공와우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 심장 수술을
지원해주셔서 걸리는
세상의 소리와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메디칼코리아
신촌성결교회
부천세종병원
바보의나눔
유진크레베스



2014년 7월
라오스 선천성 심장병 환자
따몽, 쌀리, 티다퐁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성 안 심 장 재 단
흥 능 종 묘
천경삼(경기고려인삼)
부 천 세 종 병 원
바 보 의 나 눔
유 진 크 레 베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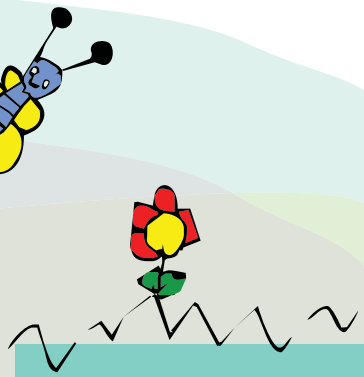
2014년 10월
말레이시아 선천성 심장병 환자
디르만, 제임스, 셀라맛,
오토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한 국 심 장 재 단
건 국 대 학 교 병 원
바 보 의 나 눔
유 진 크 레 베 스



2014년 10월
베트남 선천성 심장병 환자
흐영, 룡, 아잉, 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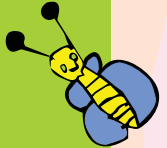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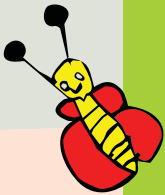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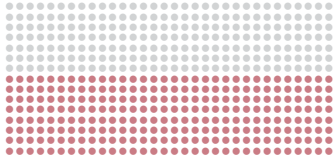
A국 2명은
종교적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을
생략하였습니다.

한 국 심 장 재 단
건 국 대 학 교 병 원
바 보 의 나 눔
유 진 크 레 베 스
이 순 형



2014년 11월
A국 선천성 심장병 환자
2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후 원 보 고

2014년 한해 동안 후원해주신 고마우신 후원자 분들을 소개합니다.

(주)케이에스이시	김효찬	서울덕수초등학교61회	이기인	조금자
강명자	김희영	서정우	이기자	조동수
강영주	남궁수	손정자	이동훈	조명숙
강유경	남서울교회의료선교회	송태순	이명진	조영란
강준영	남성주	송현숙	이미자	조영숙
강현숙	디와이홀딩스	신영현	이상운	조윤자
금석봉송담추어탕	목동14단지입주자대표회의	신용자	이선미	조은영
김경숙	문계숙	신진섭	이영신	주영일
김규철	문영기	신창국	이용신	지멘스코리아
김미정	문정인	신촌성결교회 고등부	이용자	진명희
김민애	문필기-선의통상회	신흥법	이은희	진영희
김봉학(신창스포츠)	문형호	안대현	이재열	천영옥
김성오	민경희	안은지	이정란	최성규
김수정	박길준	안종향	이정순	최원종
김승호	박다은	양정미	이종국	최원종
김승진	박동찬	여옥기	이필남	최원형
김신옥	박소윤	여주기	이행	최효리
김신혜	박영배	연미영	이행구	표승희
김연희	박예은	오세임	이향준	하숙란
김옥	박재숙	오지원	이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윤희	박정미	오혜영	장효진	한마음약국
김재병	박정애	우동일	전경숙	한왕석
김정란	박정화	우리은행 시흥지점	전미령	함종문
김정민	박정희	한국선의복지재단 운영이사회	정경순	해피빈
김정숙	박찬익	원승룡	정기한	허난숙
김정자	박학용	위희숙	정남운	허종순
김종은	박현구	유문철	정덕은	현숙미
김진권	박현명	유진크레베스(주)	정명희	홍순찬
김태연	백경화	유혜정	정성옥	홍완표
김태희	백병령	윤재원	정송자	황명덕
김현진	백준화	윤재훈	정연구	황명호
김형철	변선경	윤정이	정영규	황진선
김혜숙	사)글로벌비전	윤정혜	정은실	김도영(사진 봉사)
김혜주	삼성웰스토리(주)	이가은	정진옥	
김화봉	서울네이션스교회	이경자	조경옥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미리내와 선의재단이 함께하는 미리내앱을 소개합니다

미리내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미리내앱 속의 재미난
방법으로 '별★'을 모아
한국선의복지재단의
개발도상국 선천성 심장병
환아 수술 치료에
'별★'을 후원해주시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모바일 나눔 플랫폼 미리내앱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나눔 플랫폼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해 '별★'을 모아 후원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미리내가게에 물건 값을 미리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의 핸드폰을 통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 받아 나눔에 참여해보세요.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이 돌아옵니다.